‘진관사 국행수륙재’…49일간의 정진

9월 6일 진관사 함월당서 입재식
10월 25일까지 49일간 매주 봉행
법산 스님 입재법문서 “정진” 당부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서울 진관사는 9월 4일 함월당에서 ‘진관사 국행수륙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9월 4일 함월당에서 개건 628주년을 맞은 국가무형유산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입재하고 10월 25일까지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다.

올해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온 세상은 한가족’을 주제로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봉행된다.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입재식에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한 진관사 스님과 신도회, 청년회, 어린이법회 학생,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은 먼 길을 온 영가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대령’과 영가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드리는 ‘관욕’을 시작으로 위패 이운, 신중작법, 법문의식, 법문, 육법공양, 명발, 수륙연기, 상단의식, 천수바라, 요잡바라, 법고, 도량게, 중단의식, 반야심경, 하단시식, 법화경 독송 등 전통 불교의례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인생 총론: 세상 공부, 부처님 공부’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전쟁의 환란 속,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행수륙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날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받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며 국행수륙재 입재를 축하했다.

이어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도출되는 것도 다르다”면서 “속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욕이 나오고, 마음에 부처님 생각이 있으면 입에서 연꽃 같은 향기가 나온다”고 정진을 당부했다.

진관사는 이날 입재에 이어 10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함월당에서 법석을 이어간다.

초재인 9월 13일에는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이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를 주제로 법문했다. 이어 △이재 9월 20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우리 시대의 용서와 화해’ △삼재 9월 27일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의 ‘큰 사람을 작게 하고 작은 사람을 크게 하는 법’ △사재 10월 4일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잘 사는 법’ △오재 10월 11일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의 ‘함께 가는 길’ △육재 10월 18일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가족을 이루는 큰 인연과 공덕’ 법문이 이어진다.

회향식이 봉행되는 10월 24일 칠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무량무변 세계 중에 극락세계가 제일이라’를 주제로 법문한다.

주지 법해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서울의 유일한 왕실 수륙재로 628년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국가무형유산”이라며 “올해 수륙재는 ‘온 세상은 한가족’이라는 주제처럼 모든 이들이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감싸안으며 함께하는 뜻깊은 인연의 자리로 봉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곡사, 약효 스님 화맥 계승 거점으로

9월 4일 98주기 추모다례재
금어원 활용 방안 등 논의해


마곡사는 9월 4일 대광보전에서 ‘금호당 약효 대종사 9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근대불화의 대표적인 화승 금호당 약효 대종사의 화업과 수행정신을 계승하고, 마곡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전통 불교미술의 맥을 후대에 전하는 불사가 진행된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9월 4일 대광보전에서 ‘금호당 약효 대종사 9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병진 스님, 이정오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단청장, 일섭문도회 회원과 약효 스님의 화맥을 잇고 있는 불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불교미술의 역사와 화맥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금어원을 전통불교미술의 연구·교육·전시·창작과 후학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원경 스님은 “저의 역할은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맥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어원이 완성되면 화승들이 와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며 “화맥을 이어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곡사는 금어원 2층에 다양한 전통 단청 양식을 부분별로 구현해 누구나 단청의 종류와 특징을 직접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약효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화맥을 이어온 역대 화승들의 진영과 사진, 계보 등을 정리·전시하고, 경내에 조성된 불모비림과 연계해 마곡사 불교미술의 역사와 전승 과정을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금어원에는 대형 괘불을 펼쳐 조성·보존·모사 작업을 할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불화와 단청 작업을 비롯해 전시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곡사 성보박물관과는 기능을 구분해 목조·철조 성보 등은 기존 박물관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한편 불화와 전적 등 지류 문화유산은 금어원과 연계해 보존·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원경 스님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금어원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문중의 대표들과 함께 논의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당 약효(錦湖堂 若效) 대종사는 1846년경 태어나 1928년 입적한 화승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00여 점에 이르는 불화를 남겼으며, 마곡사를 중심으로 계룡산 일대 화승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지리산 천은사에 흐른 재즈 선율

9월 4~5일 ‘지리산재즈페스티벌’
이틀 동안 3000여 명 찾아 ‘성황’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9월 4~5일 경내 수변무대와 야외무대에서 ‘2026 지리산재즈페스티벌’을 개최했다.

‘Jazz in the Silence – 고요 속의 재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리산의 자연과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공간에서 재즈를 감상하며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틀 동안 3000여 명의 관람객이 천은사를 찾아, 자연과 산사, 재즈가 어우러진 지역의 대표 음악축제의 면모를 보였다.

첫날인 4일 수변무대에서는 박상아 Jazz Cats가 따뜻한 감성과 자유로운 즉흥연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 신경숙 Smooth Jazz Band가 친숙한 선율을 세련된 재즈로 풀어냈으며, 기독중창단 ‘커뮨’은 종교화합 특별공연을 통해 음악으로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전했다.

5일 낮 공연에는 절제된 사운드로 정통 재즈의 깊이를 전한 NS Jazz Band와 탭댄스를 하나의 타악기로 승화시킨 DONKEY’S Project가 무대에 올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저녁에는 ‘스캣의 여왕’으로 불리는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밴드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무료 예약제로 진행돼 행사 전부터 약 900명이 관람을 예약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주지 대진 스님은 “이번 지리산재즈페스티벌이 잠시 쉬어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규 대사와 승병 호국정신 기리다

9월 6일, 중앙공원서 추모대제
조헌 · 박춘무 등 의병장도 기려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 영규 대사와 의병장 조헌·박춘무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대제가 봉행됐다.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회장 조진기)는 9월 6일 청주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청주성 탈환 434주년 기념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청주성 전투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왜군에게 점령당한 청주성을 의병과 승병이 연합해 되찾은 전투다. 당시 의승장 영규 대사가 이끄는 승병과 중봉 조헌의 의병, 화천당 박춘무를 중심으로 일어난 청주 지역 의병들이 힘을 합쳐 청주성을 공격해 탈환했다.

청주성 탈환 이후 영규 대사와 조헌을 비롯한 의·승병들은 다시 왜군과 맞서기 위해 금산으로 향했고, 치열한 전투에서 많은 의병과 승병이 목숨을 잃었다.

조진기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영규 대사와 조헌 선생, 박춘무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과 승병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청주성 탈환의 역사적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창근 충청북도의원도 추모사를 통해 “선열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청주성 탈환의 역사를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는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후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송수현 전 청주불교인연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담양불교계, 군청서 ‘팥빙수 나눔’

소원정사 · 담양불교聯 등 담양군청 찾아 공무원 격려



담양 지역 불교계가 무더위 속에서 지역민을 위해 힘써온 공직자들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와 담양불교연합회(회장 덕유 스님),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는 9월 3일 담양군청에서 ‘시원 달콤 팥빙수’ 나눔 행사를 열고 공직자 500여 명에게 팥빙수를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나눔에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을 비롯해 담양불교연합회 소속 스님 10여 명과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스님과 봉사자들은 곱게 간 얼음에 팥과 망고, 블루베리, 인절미, 볶은 현미, 콩가루 등을 얹고 연유를 더해 팥빙수를 직접 만들었다. 정성껏 준비한 팥빙수는 담양군청 공직자들에게 전달됐다.

도계 스님은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담양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담양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자비신행회 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한 팥빙수 한 그릇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행복한 마음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청 직원들을 잊지 않고 찾아준 스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사암연, 백운 경한 화상 추모다례

9월 4일 정읍 미륵암서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내장사 주지)와 백운경한화상 선양회(회장 정명선)는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 정읍 미륵암 미륵전 앞 특별법단에서 ‘제4회 백운 경한 화상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는 전국비구니 차인회의 선차명상 시현, 삼귀의례, 헌향, 헌다, 헌화, 추모사, 봉행사, 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읍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백운 선사께서는 정읍 고부 백운리에서 탄생하셨으며 직지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인쇄문화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두승산 미륵암을 초석 삼아 정읍의 소중한 불교문화가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지고 후대에 길이 계승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등사 108봉사단 출범…“봉사도 수행”

9월 6일, 창단식 후 첫 활동



강화 전등사(주지 지불 스님)가 9월 6일 신도들의 기도와 정진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로 회향하기 위한 ‘전등사 108봉사단’을 창단했다.

‘108봉사단’은 주지 지불 스님이 지난 7월 취임 후 신도들의 신행과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구성 의지를 밝힌 불사다. 지난 8월부터 공양간, 울력, 법당, 템플스테이, 화단, 사찰안내, 다원, 어린이법회, 문화홍보 등 9개 분야에서 봉사자 108명을 모집해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됐다.

전등사는 신도들이 각자 신행활동과 소모임을 이어가되, 봉사단 활동을 통해 사중은 물론 지역사회로 활동 범위를 넓혀 자비 실천의 모범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지 지불 스님은 “신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며 공부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며 “사중의 다양한 일을 시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소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창단식에 이어 경내 곳곳을 청소하며 봉사단의 출발을 알렸다. 봉사단원들은 사찰을 찾은 참배객들이 쾌적하게 경내를 거닐 수 있도록 마당과 주변 곳곳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정비했다.

강화 전등사=여수령 기자

마이산 탑사, ‘트레저헌터’에 경품 기탁

9월 4일 전달식…1억원 상당



마이산 탑사가 지역사회 상생과 청소년 포교를 위해 ‘진안군 트레저헌터 보물찾기 대회’에 1억33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는 9월 4일 북부마이산 관광단지에서 기증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탑사는 보드게임 교구 5012점(1억2500만원 상당)과 발샴푸 1000개(9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전달했다.

회주 진성 스님은 “2026년과 2027년은 진안 방문의 해이자 도민 체전과 장애인 체전이 열리는 뜻깊은 해”이라며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움으로 열리는 보물찾기 대회에 귀한 기증품을 전달하게 돼 기쁘고,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이 보람과 기쁨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열리는 ‘트레저헌터 in 진안’은 진안군 용담댐 및 마이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현실판 알피지(RPG) 게임 형태의 체류형 로컬 페스티벌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